



독일월드컵 D-30

올 여름 지구촌을 그리운드의 열기로 뒤덮을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 본선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지시간 6월9일 오후 6시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킵오프 휘슬'을 울리는 개최국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이 열린다. 아드보카트호는 5월11일 최종

엔트리(23명)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월드컵 체제를 가동한다. 광주일보는 '월드컵 D-30일' 특집으로 ▲아드보카트호 출항 ▲2006 월드컵 빅 5경기 ▲G조 주요 병기들 기상도 ▲독일을 빛낼 새 별들 ▲개최지 프랑크푸르트를 가다 등 5개의 시리즈를 준비했다.

'AGAIN 2002' 내달 6일 독일 입성

▲아드보카트호 출항 D-30일
아드보카트호(號)호가 '월드컵의 바다'로 출항을 앞두고 있다.
2002년 한반도를 온통 진홍빛으로 물들였던 붉은 함성이 되살아나는 6월. 아드보카트호는 독일 쾰른의 고성(古城) '솔로스벤스베르크'에 등지를 틀고 가슴 벅찬 항해를 준비한다.
태극호는 15일 오후 1시 '약속의 땅'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집결해 닳을 울릴 체비를 갖춘다. 12일 동안 손발부터 숨소리까지 맞추고 나면 아드보카트호 전사들은 오는 27일 1차 베이스캠프인 스토클랜드 글래스고로 향해 장도에 오른다.
그 전에 23일과 26일 오후 8시 '월드컵의 성지' 상암벌에서 세네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두 차례 평가전을 갖는다.
글래스고에서 유럽 현지 적응을 시작하는 대표팀은 전세계편으로 오슬로에 날아가 6월1일 노르웨이와 원정 1차 평가전을 갖는다.
스톡홀름 에든버러에 돌아와 6월4일 치르는 본선 진출국 가나와 A매치는 독일로 가는 길의 마지막

- 클 신는 순서
1 아드보카트호 출항
2 주요 경기 '빅 5'
3 G조 주요 병기들
4 독일을 빛낼 새 별들
5 프랑크푸르트를 가다

현지 시간 6월18일 밤에는 월드컵 조 추첨식이 열렸던 라이프치히 젠탈 슈타디온에서 두번째 상대이자 G조의 가장 어려운 팀 프랑스를 만난다.
아드보카트호의 운명은 현지시간 6월23일 밤 하노버 니더작센슈타디온에서 결정된다.
조 2위를 다투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알프스 전사' 스위스와 물러설 수 없는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을 벌여야 한다.
▲역대 최고 대표팀 구성
15일 NFC 소집에서 조별리그 3차전까지는 정확히 40일이 걸리는 대장정이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최종 엔트리의 99%를 완성했다고 공언했다. 이 가운데 10명이상이 2002년에도 뛰었던 '월드컵 유경험자'다. 경험과 패기의 조화가 역대 어느 월드컵 대표팀보다 잘 이뤄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아드보카트호는 지난 해 10월 이란과 A매치를 시작으로 지난 3월1일 앙골라전까지 모두 13차례 공식 평가전과 아시안컵 예선(시리아전)을 치러 8승2무3패의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내일 최종 엔트리 발표
막 모의고사다.
▲6월 6일 쾰른 입성
쾰른에 입성하는 시점은 6월6일. 이 때부터 전쟁은 시작된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의 홈 구장 '바이아레나'에서 시차와 기후, 잔디 등 모든 조건에 최적의 적응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 뿐이다.
현지시간 6월13일 오후 3시 프랑크푸르트 코페르츠방크 아레나에서 여전히 베일에 싸인 미지의 팀 토고와 맞붙는다.

대표팀 경험·패기 조화
최근 멕시코, 시리아, 앙골라를 상대로 3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드보카트 감독은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대표팀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름의 색깔을 입혔다. 한국 축구에 잘 맞지 않는 '웃'으로 인식됐던 포백(4-back) 수비라인을 가동했고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워 중원 압박을 강화했다. 풍부한 측면 윙포워드 요원과 윙백 지원을 활용해 좌우 측면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아드보카트호 잔디 적응 최대 과제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둔 아드보카트호에 잔디 적응이라는 과제가 떨어졌다. 월드컵경기장의 잔디가 지난 한·일 월드컵이나 현재 태극전사들이 뛰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 경기장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다.
AP통신은 9일(한국시간) 독일 월드컵경기장 잔디 길이는 2.8cm에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독일 경기장 잔디 2.8cm 될듯
K리그 경기장보다 0.5cm길어

대한축구협회 대외협력국의 신만길 과장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은 잔디 길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경기감독관 재량으로 경기 잔디를 결정한다.
2002년의 경우 대회 전 열린 경기감독관 세미나에서 2~3cm로 통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대표팀은 거스 허딩크 감독의 요청으로 2cm에 가깝도록 최대한 짧게 깎은 잔디 위에서 경기했다.
현재 프로축구 경기장의 잔디 길이도 당시와 비슷하다. FC서울이 홈 구장으로 사용 중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프로축구 경기 당일 2.1~2.3cm의 잔디 길이를 유지한다.
짧은 잔디에 적응돼 있는 태극전사들은 오는 9일(한국시간) 독일 월드컵경기장 잔디 길이를 2.8cm에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독일 월드컵이 열린 12개 구장 중 베를린, 도르트문트, 카이저스라우테른 등 세 곳의 경기장이 8일부터 잔디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송중국! 마지막 기회다"

오늘 K-리그 전기리그 최종전
아드보카트호 합류여부 시험대
'K-리그 최종전 찍고 독일로 간다'
아드보카트호 태극전사들이 10일 저녁 전국 7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전기리그 13라운드 최종전에 일제히 출격한다.
오는 11일 독일월드컵 최종 엔트리(23명) 발표를 이틀 앞둔 태극전사들은 월드컵 이전 K-리그 그라운드에서 나설 마지막 기회다.
특히 송중국(수원·사진)에게는 중요한 기회다.
송중국은 수원 홈에서 열리는 전북과 일전에 미드필더로 나선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보여준 자신의 활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드보카트호의 펄 베퍼벵 코치가 그라운드를 찾는다.
송중국은 아드보카트호의 오른쪽 윙백 자리에 팀 후배 조원희(수원)의 경험 부족을 보완할 유력한 카드다.
7경기 침묵을 깨고 지난 5일 상암벌에서 득점포를 재가동한 박주영(FC서울)은 창원 원정에 나서 신생 경남FC를 상대로 두 경기



송중국에 도전한다.
지난 7일 대구전에서 페널티킥을 실패해 아쉬움을 남긴 이천수(울산)는 포항 원정전에서 시즌 4호골 사냥에 나선다. '스피드 상병' 정경호(광주 상무)는 경미한 발목 부상으로 대구FC와의 원정길에 불참한다.
한편 전기리그 1위 성남과 2위 포항의 순위가 확정된 가운데 3위 다툼이 치열하다.
/박진표 기자huck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당당한 재혼 도와드릴게요' (I will help you get remarried with confidence). Features a woman in a pink jacket and text about divorce and remarriage services.

Advertisement for '수도 배관 (남·온수·냉방) 세정업체' (Water pipe cleaning company). Includes the logo for '엘케이그린(주)' and details about water pipe cleaning services.